

원산지 관리사 수석합격자 수기



이번호에서는 원산지 관리사 수석합격자 제11회 류기식씨와 12회 이서연씨의 합격수기 및 공부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. 원산지관리사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수석합격자의 합격 비법에 나만의 비결을 덧붙여 공부한다면 좋은 결과를 거두실 수 있을 것입니다.



11회 류기식

FTA에 대해
정확하게
이해하자는
마음가짐으로



FTA에 대해
정확하게 이해하자,
무역에 대한 기초적인
지식을 쌓자.



안녕하세요? 저는 11회 수석합격자 류기식입니다. 원산지 관리사를 취득하게 된 계기는 취업준비생 시절 관세사인 학교 선배의 추천으로 자격증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. 현재 관세사들도 FTA 관련 업무진행과 컨설팅을 위해 자격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고 앞으로 수출입을 하는 기업체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자격시험이라는 내용을 듣고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. 시작은 단순하였지만 자격취득 이후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고 현재의 직장에서 FTA 업무와 관세환급 등 무역관련 업무를 하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.

원산지 관리사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는 무역에 대한 지식도 많이 없었고 관련 자격증도 전무했습니다. 때문에 이 자격시험을 준비하며 단순히 60점만 넘겨서 자격을 취득해야지 라는 생각보다 **“FTA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자, 무역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쌓자.”**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하였기 때문에 11회 시험에서 수석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



따라서 현재 FTA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, 또는 FTA 관련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면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통해 차후 업무 진행 시 보다 정합성 높은 FTA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.



과목별로 보면 수출입 통관실무의 경우 기본무역 관련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저는 각 개념을 이해하는 위주로 공부하였습니다. 무역학과, 기타 무역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시면 어렵지 않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.

FTA 협정 및 원산지 결정기준은 암기해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.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대부분 대륙별로 비슷한 FTA 협정 유형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.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여 암기하신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.

마지막으로 대다수의 분들이 40점만 넘기자 라는 생각으로 준비하시는 품목 분류실무 입니다. 저도 시작을 할 땐 막막했습니다. 이 많은 HS CODE를 언제 다 외우지?라는 막연한 생각만 들었습니다. 단기간 내에 모든 것을 외울 수 없었기에 이 과목은 다른 과목들과는 다르게 기출문제를 먼저 파악하고 시험에 주로 나오는 류들에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. 부족할 수도 있었지만 중요 류들을 집중해서 공부한 결과 실제시험에서는 네 과목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.

원산지관리사라는 자격증이 FTA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도와주는 자격증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. 하지만 이 자격증이 FTA 전문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현업에서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예외적인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.

물론 자격시험에 활용되는 이론적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자신이 속한 기업, 더 나아가 그 산업군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바탕이 되어야 FTA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

현재 직접 수출입을 진행하는 기업 이외에 1차, 2차 제조사들의 경우 FTA를 통한 직접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FTA업무는 단순한 페이퍼워크, 의미 없는 일이라 인식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잘못된 FTA의 활용은 기업의 존폐를 좌우할 수도 있고 반대로 간접적인 가격경쟁력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. **“따라서 현재 FTA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, 또는 FTA 관련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면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통해 차후 업무 진행 시 보다 정합성 높은 FTA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.”**





12회 이서연

기본서 정독과 서브노트가 합격의 비결

안녕하세요, 저는 12회 수석합격자 이서연입니다.

원산지관리사는 제가 2014년 7월에 관세사 시험을 치고 '무역과 관련된 자격증이 또 어떤 것이 있을까?'하고 알아보던 중 친구의 추천으로 알게 되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

이렇게 시작한 시험에서 합격과 동시에 수석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건 아마도 제가 관세사 시험을 통해 이 분야에 대한 공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준비를 한 덕분인 것 같습니다.

원산지관리사를 실질적으로 공부한 기간은 한달 정도이며, 시험기간이 길지 않았던 만큼 계획을 세우고 최대한 계획표대로 따라가려고 노력했습니다.

크게 1주 [원산지관리사 4과목 기본서 정독 - 과목의 큰 흐름 파악] → 2주 [기본서 꼼꼼히 보면서 필요한 과목(원산지결정기준)은 서브노트 작성] → 3주 [만든 서브노트 암기, 기출문제를 풀기, 기출문제 오답 해설, 암기] → 4주 [서브, 기출문제에서 오답이었던 부분을 보완해가며 암기하고 마지막 정리] 계획을 잡고 공부했습니다.

공부를 할 때도 각 과목 특징에 맞게 공부하였습니다.

FTA협정은 기본적인 틀은 동일하나 FTA 체결국간 체결내용을 달리 하는 것이므로 표를 만들어서 협정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체크해 가면서 공부를 하니 효율적으로 암기가 잘 되었습니다.

수출입통관실무는 따로 서브를 만들지는 않고 원산지정보원에서 나오는 기본서로만 학습하였으며, 기본서를 정독하면서 이해를 하였고 그 다음에는 기산일과 기간, 기한 등 날짜를 중심으로 암기하였습니다.

품목분류는 관세사 시험 과목 중 하나로 관세사 시험 공부할 때 공부를 이미 많이 했었기 때문에 다른 과목들에 비해 가장 쉽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. 저는 통칙을 가장 먼저 이해하는데 집중했고 그 다음은 큰 범위에서 작은 범위로 (부→류→호) 범위를 좁혀가면서 체계를 잡아가며 공부하였습니다.



하지만 공부를 하면서 큰 맥락으로나마 FTA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고, 실무에서 FTA를 적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.



원산지 결정기준은 원산지관리사 시험 중에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었습니다. 암기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과목이며 원산지결정기준을 이해하고 응용하여 답을 찾는 과목이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저는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 암기한 후에 기출문제를 풀면서 이해를 하였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다시 암기를 하니 도움이 되었습니다.

원산지관리사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는 FTA에 대한 관심은 많았지만 따로 공부를 하기에는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. “하지만 공부를 하면서 큰 맥락으로나마 FTA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고, 실무에서 FTA를 적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.”



FTA 전문가, 원산지관리사